고산리 당산봉 비탈면 훼손 '인재'

포구 조간대 매립과 방파제 공사로 사면 침식 가속화
제주시 "지질분야 전문가 설계 검토 거쳐 공사" 해명

제주시 한경면 고산리 자구내 포구와 맞닿아 있는 당산봉 비탈면(고산 3 급경사지 사면) 훼손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당산봉 비탈면을 급경사지 위험(사면재해)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를 해 오다가 지난 3월 4일 정비공사에 들어갔다.

고산3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지정면적 1만4500㎡ 중에서 사면 정비 4002㎡와 낙석 방지망 1547㎡를 설치하는 공사로, 오는 9월 준공 예정이다.

현재 공사중인 당산봉 비탈면은 고산 자구내 포구 선착장에 위치해 있어 계속해서 흙이 무너지는 등 붕괴가 발생할 경우 인명과 재산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수해저감종합계획(2014년 2월)에도 급경사지 위험(사면재해) 지구로 지정돼 특별관리를 해 오던 지역이다.

이처럼 당산봉 비탈면이 붕괴위험에 처하게 된 것은 그동안 해안침식 완충 작용을 하는 조하대와 조간대를 매립하고 방파제 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한 지역주민은 "어릴적 헤엄을 치던 곳이 현재 매립됐고 방파제 공사를 하면서 당산봉 비탈면이 일부 훼손됐다. 이후 주민들의 편의는 좋아졌지만 재해위험은 더욱 높아지게 됐다. 또 현재 훼손된 비탈면을 안전하게 정비하면 되는데 당산봉 중턱에서부터 공사를 시작하면서 경관이 완전히 망가졌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대해 제주시는 관계자는 "이번 정비사업은 지난 2017년 2월 20일부터 같은해 12월 18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수행하면서 제주도 관계부서와 토질과 지질분야 전문가의 사전실시설계 검토를 거쳐 사업범위 및 시공방법을 확정해 그 결과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구내 포구 안쪽 조간대·조하대 매립과 방파제 공사가 당산봉 비탈면 훼손을 가속화시켰다는 지적을 면하지 못하게 됐다.

한편 제주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당산봉 정비사업은 절대보전지역 훼손한 환경파괴' 주장과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인 경우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은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 면적은 4002㎡로 도시지역(녹지지역)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기준면적의 40%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업대상 면적 중 일부가 절대보전지역에 포함돼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절대보전지역 행위허가 협의를 사전에 이행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항공요금 인상 철회·연기해 달라"

도내 관광업계 국내 항공사에 건의문 전달

지난 6월 대한항공과 아시아항공이 제주 기점 항공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저비용항공사 3곳도 조만간 인상 대열에 합류하기로 하자 도내 관광업계가 모든 항공사를 상대로 요금 인상 계획에 대한 철회 또는 연기를 요구하기로 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는 16일 도내 15곳 국내·일반여행업 대표와 함께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관광업계는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진에어 등 저비용항공사 3사가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 이달 말과 8월초 사이 제주기점 노선의 성수기 요금을 인상할 경우 제주 여행을 계획한 단체·개별 관광객이 고비용을 이유로 일정을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 여행업을 포함한 관광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번 인상은 수요가 많은 제주노선 요금을 올리는 방식으로 나머지 국내 노선과 해외 노선에서 본 적자분을 보전하려는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도내 관광업계는 이르면 17일 국내 모든 항공사에 항공 요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 계획이 있다면 연기하거나 철회해달라는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하기로 했다.

또 제주도정을 향해서는 많은 관광객을 수송할 수 있는 대형항공기가 제주공항에 보다 많이 취항할 수 있게 대형항공기 이·착륙료 지원을 확대해줄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제주시 관내 건축물 철거 전년대비 20% 가량 감소

제주시 관내 건축물 철거면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물 전체 철거건수는 315건, 철거면적은 4만9994㎡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읍면지역 143건 2만1547㎡, 동지역 172건 2만8446㎡으로 조사됐다. 전년동기와 비교하면 2018년 상반기(406건, 6만2845㎡)보다 철거건수는 22%, 철거면적은 20% 각각 감소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철거의 주된 요인은 건물 노후로 인한 철거와 고층으로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로,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철거 신고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대로기자

환상자전거길 점거한 불법주차 때문에… 16일 제주시 애월읍 해안도로 제주환상자전거길을 불법주차 차량들이 점거해 버리자 이곳을 찾은 자전거 동호회원들이 교통사고에 노출된채 도로를 달리고 있다. 강희만기자

■ 알바몬, 전국 시·도 아르바이트 시급 분석

제주 8870원으로 3위… 인상률은 하위권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시급이 전국에서 세번째로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아르바이트 포털 알바몬이 올 상반기 자사 플랫폼에 등록된 각 광역시도별 아르바이트 시급 빅데이터 960만여건을 분석해 16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시급은 8870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종시(9126원), 서울시(8969)원에 이어 세번째 높은 것이다. 올 상반기 전국 아르바이트 노동자 시급은 평균 8881원이다.

상반기 전체 평균 시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평균 9.9%(797원)이 올랐다.

전국 광역시도 중 지난해 같은 기간에 견줘 가장 시급 인상률이 높았던 곳은 충청북도로 1년 사이 평균 873원(11.0%)이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 아르바이트 노동자 시급은 높은 편이지만 전년 대비 인상률은 7.8%로 전국평균(9.9%)에 못 미쳤으며 증가 폭은 전국에서 4번째로 낮았다. 이상민기자

옷 갈아입기 화장실행 사라지나

교육부 2021년까지 중·고교에 탈의실 설치

2021년까지 모든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2021년 상반기까지 학생 인권 보장과 편의를 위해 전국 중·고등학교에 학생 탈의시설을 100% 확충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올해 시·도교육청에서 진행 중인 탈의시설 확충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탈의시설 활용도와 불편사항, 개선점 등을 찾아 제도 개선에 초점을 두고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어 2020년부터 교부금의 교육환경개선비에 탈의시설 항목을 신설해 재원을 확보하고, 2021년 상반기 내 전국 중·고등학교에 탈의시설을 완비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학교 내 공간 부족 등 물리적 한계로 말미암아 탈의공간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복도 등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칸막이형 탈의실 등 다양한 유형의 탈의시설을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제주를 포함해 전국 중·고등학교 상당수는 아직 탈의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거나 활용도가 낮아 체육시간마다 교실이나 화장실 등 열악한 환경에서 옷을 갈아 입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탈의시설을 갖춘 전국 중·고등학교는 3710교로 전체의 65.2% 수준이다. 표성준기자

"현장실습 앞서 노동인권 교육 필수"

도내 교원들 경기 벤치마킹

현장실습 담당 교원들이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벤치마킹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11~13일 서울·경기 일원에서 도내 직업계고 교감 및 취업담당 교원을 대상으로 2019 학생 맞춤형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 벤치마킹을 통해 직업계고 교원들의 현장실습 및 취업역량을 강화시켰다고 16일 밝혔다.

도내 직업계고 교감 및 취업담당 교원 24명은 경기도 수원 삼일공업고등학교와 수원농생명과학고등학교를 방문해 교육과정과 취업지원 및 현장실습 운영 방법을 공유하고, 선일이비즈니스고등학교를 찾아 현장실습 지원방안을 탐색했다.

또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의 '현장실습과 노동인권 강의'를 통해 취업 현장에서 학생들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 사전교육으로 반드시 노동인권 교육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는 등 향후 현장실습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업계고 교원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를 가졌다. 표성준기자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태양광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도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태양광 발전
한 우물만 파온 제주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 과수원, 밭, 유휴부지 소유자
▷ 옥상/지붕이 넓은 건축물 소유자
▷ 30년간 안정적 소득 희망자
▷ 장기간 "임대료 수입" 희망자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꼭 상담을 받아보세요

연금같은 수익 보장의 대명사!
태양광 발전소

30년 동안 일정하고 "안정적인 소득" 보장
장기간 지급이 보장되는 "임대료 수입"

부담되는 사업장 전기요금 "뚝"
일반용 태양광

"일반용" 또는 "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사업장
전기요금 절감 후 추가 50% 할인혜택 적용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